

자위소방대에 소방차가 있는 한일합섬

취재 / 이 두 홍 (홍보2과장)

한일 여자실업고등학교와 팔도잔디로 잘 알려져 있고 팔도소녀들의 정성이 모여 이룩되었다는 한일합섬!

방적공장의 특수한 여건에서도 단 한번의 화재사고도 경험하지 않고 철저하고 완벽한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한일합섬 대구공장을 찾았다.

• 대구에서 제일 큰 방적공장

대구에는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지점에서 동쪽 금호강 연안에 위치한 혹서의 도시, 능금의 고장, 우리나라 최대의 섬유공업 도시로 이름난 도시이다.

대구직할시 북구 검단동 838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한일합섬 대구공장은 22만4천1백80평방미터의 넓은 대지위에 연면적 12만1천8백54평방미터의 방적공장건물 등 24개의 건물동으로 1975년 1월 28일자로 설립되었다.

이 공장은 총 21만2천6백20추 (정방기 475대)의 방적시설로 1일 아크릴사 4만킬로그램, 혼합사 3만5천킬로그램을 생산하여 80%정도를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 방직공장에 공급하고 있는, 대구에서는 시설과 종업원수 등에서 제일 큰 방적공장으로 꼽히고 있다.

• 완벽한 소방설비의 유지관리

한일합섬 대구공장은 방적공장건물과 기숙사 등 전건물에 법정기준에 맞게 각종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4개동의 방적공장과 기숙사에는 1백74개의 옥내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고, 원자재창고에는 스프링클러소화설비를, 기타 부속 건물에는 ABC급 분말소화기를 충분히 비치해두고 있다.

소방설비는 법정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설비의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설비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설비에 대한 점검은 자체 소방계획서에 의거, 자율점검과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 등 9개 점검정비반을 편성하여 방화관리자를 책임자로 각 반장과 반원을 중심으로 일별,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 체계적인 방화조직

이 공장은 매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이 계획서에 따라 방화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작성된 89년도 소방계획서를 보면 자위소방대 조직으

로 민방위조직을 이용한 일반대상의 자위소방대와 예비군과 민방위조직을 이용한 통합자위소방대, 야간 또는 공휴일에 대비한 자위소방대 등 3개소방조직을 편성 운영하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별조직으로 직장부녀소방대까지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업무의 활동전반을 심의 결정하는 소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분기마다 1회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

• 철저한 방화교육과 훈련

한일합섬 대구공장은 전사원을 대상으로 매일 근무교대시간 전후에 화재신고요령, 대피요령 등에 대한 행동요령을 숙지토록 하고 매분기 1회이상 전사원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방화교육을 실시하며 신입사원에게는 수시로 철저한 방화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각 부서별로 방화관리자나 화기책임자가 주관하고 특별히 소방관서나 외부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소방훈련은 소화기, 옥내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각종설비나 기구 등에 대한 사용방법을 익히게 하는 기초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지휘,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등에 대한 개별적 부분 훈련은 매월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고 실제화재에 즉각 조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종합훈련은 3월과 10월에 또 화재진압작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도상훈련은 년4회에 걸쳐 실제와 같은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 방화에 대한 경영진의 높은 관심

한일합섬 대구공장이 이렇게 완벽한 방화설비를 갖추고 철저한 방화교육과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룹차원의 지원과 함께 모든 경영진들의 높은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공장의 방화관리 실무책임자로 있는 예비군중대장 김오근 씨에 따르면 한일합섬 대구공장은 지난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을 맞아 대구시장으로부터 우수 방화관리업체로 선정되어 단체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 매년 대구시가 주관하는 소방경영대회에서도 매년 우승하는 등 대구지역에서는 모범방재업체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경영진과 사원들의 방화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방화관리자 김오근씨는 「방적공장은 타업종에 비해 가연물이 많아 화재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형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회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방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다.

실제 이러한 사실은 이 공장이 설립과 동시에 소방차까지 갖춘 자위소방대를 발족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중에는 성냥을 휴대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한일합섬이 운영하고 있는 이 소방대는 자체소방활동은 물론 대구지역의 소방지원 활동까지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이어 김오근씨는 「이러한 경영진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소방설비의 설치

와 유지관리, 교육훈련, 설비의 개 보수까지 큰 어려움없이 잘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내년에는 구입한지 오래된 소방차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한다.

방화관리자로 있으면서 관계 기관이나 협회에 대한 요망사항에 대하여 김오근씨는 「현재의 소방관계법은 용어자체가 어렵고 우리현실에 맞지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실정에 맞는 법규나 제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요망하면서 협회에서도 「방화관리자나 관계자들의 실무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화관리 지도를 해 주고 또 각종 홍보유인물도 큰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망한다.

방재와보험 취재팀이 매호 발간때마다 우수모범방재건물과 업체를 탐방하면서 느낀것은 모든 업체 공통으로 방화관리자들의 직급이 막중한 임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다.

방화관리자는 소방, 건축, 전기 등 여러분야의 관련기술과 법규에 관한 소양은 물론 전 사원들을 교육 훈련시켜야 하는 능력까지 요구하고 있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낮음으로써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한다. 모든 직책이 다 중요하겠지만 방화관리자들의 직책은 해당 업체 종사원들의 귀중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임무외에도 화재사고에 대한 법적책임까지 져야하는 책무에 걸맞게 방화관리자들의 직급을 올려주고 권한도 함께 부여 해 줌으로써 이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방화관리자가 이루어질 때 화재없는 복지사회가 이룩될 것으로 확신해 본다. (11)